

입계동정

LG產電(株), 말聯에 몰드변압기 부품 및 기술 수출

LG產電(株)(代表: 李鍾秀)가 말레이시아의 헤니권(HENIKWON)社에 몰드변압기 부품과 제조기술을 수출한다.

수출기종은 빌딩에 많이 쓰이는 10kv급 배전용 몰드변압기로 LG산전은 5년간 코일 등의 핵심 부품 1,300만 달러 어치를 공급키로 했으며, 헤니권社 매출의 3%를 기술료로 받기로 해 총 수출규모가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LG산전은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자료 제공은 물론 헤니권社 기술자들을 몰드변압기 생산공장인 청주공장에 초청하여 설계, 제조, 조립, 시험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헤니권社가 요구할 경우 LG산전 기술진의 말레이시아 파견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에 몰드변압기를 직수출해온 LG산전은 이번 부품 및 기술수출을 통해 말레이시아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 및 인근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직수출과 기술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LG산전은 오는 2천년에는 몰드변압기 수출을 현재 5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 짓고 있는 대련공장을 생산거점으로 이용해서 중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 중국시장에서만 오는 2천년에 2,4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몰드변압기 기술수출은 국내업체로는 LG산전이 처음으로, 완제품 직수출보다 고부가가치의 수출이란 점과 국내 몰드변압기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몰드변압기는 전기를 각 수용가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 공급하는 변압기기로 국내에는 기존 유압변압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80년대 초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帝龍產業(株)등 아몰퍼스변압기 한전 납품

帝龍產業(株)(代表: 朴鍾台)와 東邦電機 工業(株)(代表: 梁友鉉)가 아몰퍼스 변압기

를 개발 한전으로부터 공급자격을 부여 받았다.

제철산업과 동방전기는 23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 전기연구소의 아몰퍼스변압기 개발시험을 통과한 후 한전의 등록업체 자격심사를 완료, 업계의 기술개발을 선도했다.

또 신한전기, 한양전기, 삼진변압기, 삼정전기 등 4개사가 한전의 도면 검토를 마치고 한국전기연구소의 개발시험을 앞두고 있어 한전공급 유자격업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월 아몰퍼스변압기 개발채택

업체 지정신청 공고시 향후 5년간 소요예수량이 2만대에 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아몰퍼스변압기는 무부하 손실이 기존 변압기의 4분의 1 수준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전용 주상변압기를 전량 아몰퍼스변압기로 교체할 경우 연간 6백45GWH의 전력손실감소 효과가 예상되고 이를 발전원가로 계산시 연간 약 2백15억원의 절감효과와 73MW정도의 최대수요 억제효과,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억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株)大慶機械製作所, 극저속모터 생산라인 구축

(株)大慶機械製作所(代表：金榮振)가 최근 극저속모터의 본격생산을 계기로 기존 서보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과 대형기종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경기계제작소는 기존 서보모터가 중형에 집중돼 있고 설비구성 비용이 과다해 가격이 싸고 설치가 간단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극저속 모터의 경우 연산 1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한데 이어 5천마력급이상 대형모터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대경기계제작소가 양산에 들어간 극저속

모터는 회전속도가 느려 타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극저속 모터는 특히 내부에 42개에서 1백16개의 자극을 설치, 정격회전수가 30~1백rpm으로 일반모터가 자극이 2~8개에 불과해 정격회전수인 4백~1천8백rpm으로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감속기가 필요없도록 설계했다.

또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을 얻을수 있어 위치제어가 정확, 로봇과 자동화기기에 사용하는 기존 서보모터를 대체할 수 있고 1개의 제어반으로 여러대의 모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부하가 걸렸을 때 모터내에 전류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 모터가 타는 현상

이 발생하지 않아 승강기 주차설비 동작기계 등 응용분야가 넓고 가격도 기준제품보다 최고 50% 정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極東電線工業(株), 선박용전선 수출 강화

極東電線工業(株)(代表: 崔炳哲)가 특화 품목인 선박용전선 수출을 강화한다.

극동전선은 최근 국내 조선경기가 호전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개선되는 등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박용전선 수출을 강화, 해외 선박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동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노후선박의 대체 물량 발생으로 선박용전선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데다 국제적으로도 최대 선박수주국인 일본이 엔화강세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 및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극동전선은 특히 연간 1백억원대에 달하고 있는 대일 수출의 경우 엔화강세에 힘입어 수익성이 10% 이상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물량 수주 등으로 연말까지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平一産業(株), 부산영업소 신설

平一産業(株)(代表: 金鳳周)가 최근 고객 봉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에 제1영업소를 개설했다.

이번 부산영업소의 개설로 평일산업은 생산제품에 대한 신속한 A/S는 물론 사용방법 등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케이블 접속재의 국산화를 통해 품질향

상은 물론 가격인하를 이룩 국내 최대의 케이블 접속재 회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자기애자를 대체할 수 있는 폴리머(고무)애자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 약 1백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은 물론 외화획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 배전망 전력기자재 공급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미얀마에 전력기자재를 공급키로 함에 따라 경쟁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제휴와 협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종합상사, 대우, LG상사 등 3개 종합상사는 최근 미얀마 전력청이 발주한 미얀마 수도 양곤의 위성도시 배전망 개선을 위한 기자재 공급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3개 종합상사 컨소시엄이 공급하게 될 기자재는 1,500만달러 상당의 전선, 변압기, 애자, 차단기, 가로등 및 기타 자재류 등 배

전에 소요되는 기자재로 오는 12월까지 미얀마측에 제공된다.

이번 수출은 지난 '95년 한국과 미얀마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 종합상사 3사는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미얀마 인근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전력분야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는데 협조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